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전문상담 박사 과정(DPC) 총괄부터 후원자 감사까지 -
이경식 부총장의 뜻깊은 한국 방문



이경식 부총장(해외협력처)은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국을 방문 중이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전문상담 박사 과정(DPC)을 총괄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해외협력처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경식 부총장의 활동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이번 한국 방문의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정동교회(천영태 목사)의 CST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동교회에 역사적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다. 2024년, 이경식 부총장은 김찬희 박사가 소장하고 있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일기장 몇 권을 기증받았다. 한국에서 작성된 일기는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바 있으나, 이번에 전달하는 아펜젤러의 일기에는 그가 1880년 대학생 시절 일 년 동안 기록한 일기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총장은 앞으로 이 일기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디지털 도서 형태로 CST의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읽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교회는 매년 CST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도 여덟 분이 있다. 이경식 부총장은 2월 17일 이분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DPC 과정에는 현재 1기 및 2기생 총 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의 협조 아래 진행되고 있다. 첫 주에는 Frank Rogers 교수와 김정희 교수가 “내적 가족 체계(IFS)와 치유”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내적 가족 체계(IFS)는 상담 접근 방법 중 하나로, 한국에서도 일부 알려져 있지만 아직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 Frank Rogers 교수는 IFS 공식 훈련가로서, 상담 접근 방법을 영적 치유와 접목시킨 유일한 IFS 공식 훈련가이다. 김정희 교수는 Rogers 교수의 수제자로, 그의 저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바 있으며, CST의 D.Min. 과정에서도 함께 강의한 경험이 있다.



(사진: Frank Rogers 교수와 김정희 교수가 DPC 세션 첫 주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둘째 주에는 이경식 부총장이 ‘영성통합심리치료(Spiritually Integrated Psychotherapy: SIP)’ 과목을 강의한다. SIP는 Association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에서 2019년에 새롭게 개발한 전문 상담가를 위한 영성 통합 접근 방법이다. 이경식 부총장은 미국 심리학 면허 소지자로, 미국에서 SIP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지정된 소수의 훈련가 중 한 명이다. 2019년에 SIP 과정이 완성된 후, 그는 2년에 걸쳐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이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SIP 훈련을 진행해왔다. 한국에서도 영성통합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다종교적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접근법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총장의 향후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사진: 이명욱 학생 제공)

이경식 부총장은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CST 동문들이 사역하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와 행복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한 교회로는 동해감리교회(이상수 목사), 일신교회(박강민 목사), 수원제일교회(박상영 목사), 삼청교회(김두영 목사)가 있다. 또한, 2월 6일에는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정태기 이사장)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맡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학 지원 중인 학생들과의 상담, 동문 및 후원자들과의 미팅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사진: 2024년 11월 한국 방문 권오서 감독과의 만남)



(사진: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방문, 임종환 총장대행, 이경식 부총장, 정태기 이사장 부부 * 왼쪽부터)

전문상담 박사(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과정 입학설명회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프로그램 소개

전문상담 박사(DPC) 과정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과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HCG)가 협조 관계 아래 상담학 석사나 관련 된 학위를 소유한 상담사를 위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었으나, 언어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유학 의 어려운 관문을 넘을 수 없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몇 년의 해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 상담 박사(DPC) 과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차 입학설명회

- 일시 : 2월 5일 (수), 10:30-12:00
- 장소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1)

중 입학설명회

- 2차: 2월 11일 (화) 오후 8시
- 3차: 3월 1일 (토) 오전 9시
- 4차: 3월 15일 (토) 오전 9시
- Zoom meeting ID : 577 257 9397

학제에 관하여

- 총 36학점(한 과목당 4학점)
- 졸업생은 CST의 졸업장 수여

지원자격

1. 대학원에서 상담학, 상담 관련분야 등 학위 취득한 자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2. 교육부가 인정한 상담학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2)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4. 입학에 위해 기초신학과목을 학부 이상에서 이수한 자(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
- * 신학과목 미이수자는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영상강의를 수강하면 이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입학원서/등록금과 장학금/논문

1. 링크를 통해 원서 작성: <https://cst.edu/apply-now/>
(수료한 학사 이상의 학위의 공식 영문 성적표, 3장의 추천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에세이, 이력서, 전형료 \$50 (신용카드 결제 가능))
2. 등록금(한 학점당 \$1,100)/ 소정의 장학금(등록금의 25%까지)
3. 논문은 한글로 쓸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영어 논문 제출을 원하는 자는 한글 완성 후,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 가능,
2명의 교수로 구성된 논문 위원들 지원, 완성 과정에 구술시험

교수진

1. 클레어몬트: 이경식 교수, Frank Rogers Jr. 교수, Yuki Schwartz 교수, Andrew Dreitcer 교수
2. 치유상담대학원: 김용환 교수, 유상희 교수, 정푸름 교수

문의: 김민정(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생, minjung.kim@cst.edu / 010-3243-7568)

2025년 겨울학기 실천신학 박사과정 인텐시브 수업, 성공적으로 마쳐
- CST, WASC 및 ATS 승인으로 글로벌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 도입 -



(사진: 인텐시브 수업 후 단체사진)

2025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인텐시브 수업이 2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수업은 CST 동문들과 기감 교육국의 후원 덕분에 더욱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동문들의 지원은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으며, 학습 환경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특히, 이번 겨울학기 인텐시브 수업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교회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1, 2, 3학기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후 소감문을 통해 이번 경험이 단순한 학문적 배움을 넘어서 목회적 실천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였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실천신학 박사과정을 통해 얻은 통찰과 배움이 미래 교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지도자로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래 기사 참조).

좋은 소식은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이 2025년부터 서부대학기관협의회(WASC)와 북미신학대학교협의회(ATS)로부터 원격 수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며, 학문적 품질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넓은 국제적 인지도를 쌓아가며, 학생들에게 보다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CST는 100% 원격 수업 인증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실현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문을 탐구할 수 있다. 2025년 겨울학기부터는 한국에서 대면 현장 집중 수업을 진행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7월 여름학기에는 Zoom을 통한 실시간 원격 집중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 미국 내 대면 수업 없이도 여행비 부담을 최소화하며 전 세계 어디서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CST는 대면 현장 수업과 실시간 원격 수업을 통합한 글로벌 하이브리드 신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혁신적이고 접근 가능한 교육 모델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 현장 수업과 원격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학생들이 CST의 우수한 교육을 경험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CST에서 1 학기를 마치면서...



〈사진: 안종민 목사〉

2025년 겨울학기부터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안종민목사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본 과정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시작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후반기에 제약된 상황이 해결되고, 드디어 학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1월, 목원대학교에서 2주간 진행된 첫 수업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성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교회 안의 차별과 갈등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목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논문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다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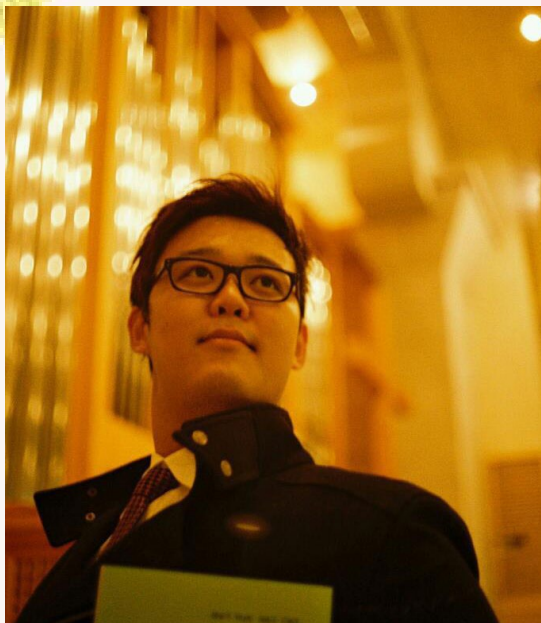
CST에서 처음 접한 수업은 김남중 교수님의 ‘Practical Research Project Methodology’였습니다. 수업 전 과제물을 통해 질적연구의 개념을 공부하였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들으면서 복잡했던 개념들이 정리가 되었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남중 교수님의 열정적이고 유연한 수업의 진행에서 학업의 재미와 감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김용환교수님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였습니다. 연령차별주의는 CST에서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자 교회 안에서 갈등의 요소가 되는 연령차별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된 것은 제게 큰 수확이었습니다. 또한 김용환 교수님의 깊은 사고와 실천적인 가르침에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과의 교류도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신학적 관점을 공유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상호 작용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CST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여러 선배님들이 본 과정을 추천을 하면서 “참으로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들도 함께 시작한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잘 마치고 행복하게 졸업할 날을 기대하며 클레어몬트에서의 첫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CST에서 2 학기를 마치면서...



〈사진: 지성서 목사〉

저는 CST D.Min 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이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성서 목사입니다. 여러 학우들과 동문들, 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여름 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래 해당 학기는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Zoom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Zoom 비대면 강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강의를 매우 인상적이고 유익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김남중 교수님께서 Zoom 강의를 Recording해 자료화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름 학기가 끝난 지 반년 이상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그 강의를 종종 듣습니다. 강의 실황이 자료로 남는 것은 비대면 강의의 매우 큰 장점입니다.

당시에 학생들은 제주도에 모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강의 후에 식사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덕분에 비대면 강의에서 오는 아쉬움과 미국에 가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강의(김남중 교수님의 예배와 설교, 김혜란 교수님의 포스트콜로니얼과 상호의존성)중에 조별 과제가 있었습니다. 학우들이 제주도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과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했고,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비대면 강의라고 각자 집에 있었다면 얻지 못했을 배움이었습니다. 앞으로 D.Min과정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과정의 장점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약점을 보완할 방법 또한 분명합니다.

2025 겨울학기는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남중 교수님과 질적 연구 방법론을 공부하며, CST가 D.Min 과정의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공부의 목적은 목회를 일반화하고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CST의 공부는 각자의 목회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렇기에 질적 연구 방법은 D.Min 학위의 주제인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과 매우 잘 어울려집니다. 또한 논문에 대해 고민하며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김용환 교수님의 Aging, Ageism강의에서는 새로운 목회 대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훈련된 노인세대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신선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을 발견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는 지난 여름 Zoom강의의 아쉬움을 충분히 달래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여러 학우들, 교수님들과 교제했습니다. 삶을 나누었습니다. 강의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다른 학우들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동문회와 천성교회,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을 통해 제공된 식사와 다과에서 따뜻한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CST는 저에게 새로운 카메라 렌즈와 같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종류와 특성에 따라 피사체 왜곡이 발생합니다. 어떤 렌즈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렌즈가 필요합니다. CST에서 공부 하기 전의 저는 왜곡이 심한 렌즈 한 개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도, 세상도, 성도들도 왜곡이 심한 단 하나의 렌즈를 통해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CST에서 한 학기, 한 학기 배울 때마다 저는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렌즈를 구비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CST의 여정이 저의 목회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확신합니다. 두 학기 공부를 통해 저는 벌써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CST의 시스템은 여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배움을 바탕으로 목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치유와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학우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CST 학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고, 험난한 목회의 여정,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동행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CST에서 3 학기를 마치면서...



〈사진: 이규운 목사〉

저는 CST에서 박사과정(Korean D. Min. Intensive Course) 중에 있는 이규운 목사입니다. 원고 청탁을 받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마등처럼 지나간 3학기를 생각하니 먼저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학문적 깊은 강의까지 해주신 이경식(K. Samuel Lee)부총장님 그리고 국제협력담당 김남중(Namjoong Kim) 부학장님에게 지면을 통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교를 사랑해서 매 년 헌신과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과 클레어몬트의 모든 선후배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4 년 겨울 학기를 첫 학기로 시작하였고 지금은 코스웍(3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CST에 진학을 하게 된 동기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미 세계의 우수한 교수진(faculty)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학문적 전통성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둘째, 클레어몬트가 추구하는 학교 이념이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신학적 학문의 방향성과 같았습니다.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다니면서 학문의 다양성과 상호의존적인 학문적 통찰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제가 CST에서 공부하는 동안 CST가 추구하는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에 기반한 매 학기 강의는 저의 목회 현장의 영역을 더 깊고 넓게 해주었습니다. 나아가서는 깊은 학문적 통찰과 실천적 목회의 지평까지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클레어몬트의 매 학기 교수진(faculty)의 연구와 강의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이경식 교수(K. Samuel Lee)의 Trauma and Grace 강의를 통해 목회적 돌봄에 대해 귀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특히 내러티브 담론은 목회자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정희수 교수(Hee-Soo Jung)의 Pastoral/Spiritual Leadership 강의를 통해서 순례 여정의 리더십 형성에 대해 배웠는데 목회자의 자기 담론의 형상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혜란 교수(Hye Ran Kim-Cragg)의 강의는 Postcolonial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호의존성과 환대의 문화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김용환 교수(Yong Hwan Kim)의 Aging, Ageism 강의는 노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만드는 시간이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상호의존적 존재로서 자기 담론을 만들어 주는 가에 대한 실천 목회의 토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김남중 교수(Namjoong Kim)의 Preaching and Worship 강의는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치료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김남중 교수의 Practical Research Project Methodology 강의는 그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양적 학문연구방법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ST의 신학은 나에게 학문의 지평과 깊고 넓은 실천 목회의 다양성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공부한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아직 논문을 써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운 나의 학문과 성찰의 성지인 이곳 CST에서 공부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한국어) WASC & ATS 승인: 글로벌 하이브리드 신학 교육

이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100% 원격 수업 인증으로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 1월 겨울학기: 한국에서 대면 현장 집중 수업 진행
- 7월 여름학기: Zoom을 통한 실시간 원격 집중 수업 진행

미국 내 대면 수업 없이 여행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자에
대한 부담 없이 신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글로벌 하이브리드 신학 교육 특징:

- 현장 중심 학습과 원격 학습의 통합
- 유연한 시간 관리와 학습 환경
- 뛰어난 교수진과의 실시간 상호작용



CST에 입학하여 새로운 신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험해보세요!

CST, The Center for Korean Ministries를 설립하다

이경식 부총장은 한인 연합감리교회(UMC)와 CST가 더욱 가까워질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25년 4월 5~6일 UMC 평신도와 목회자를 위한 공개 강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부총장은 “이 공개 강좌를 통해 한인 UMC 평신도와 목회자가 UMC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길 바라며, UMC의 장점 중 하나인 균형 잡힌 신앙과 신학적 이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공개 강좌가 “연중 행사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강좌는 새로 이전한 Westwood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CST의 객원 교수인 강남순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아래의 포스터 참고)

이 공개 강좌는 여러 교회와 크리스천 위클리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서부지역회와 LA 연합감리교회의 이병준 장로 또한 후원하고 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며 재정 및 행정 관리를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을 느껴, CST의 자매 기관으로 The Center for Korean Ministries를 설립하고 있다. 이 센터는 기존에 CST에 있었던 The Center for Pacific and Asian American Ministries를 대체하게 되며, 현재 구성된 이사진은 다음과 같다: 이창민 목사(이사장), 이상영 목사(부이사장), 이영성 목사(총무/회계), 전재홍 목사(서기). 앞으로 이사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센터의 활동을 통해 한인 UMC 내에서 새로운 배움과 신앙 실천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센터를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이경식 부총장(slee@cst.edu)에게 연락하면 된다.



2025 한인연합감리교회 강좌

마음과 이성, 신앙과 지식의 성장을 위하여

“Growing in Hearts and Minds, Faith and Knowledge”



강사: 강남순 교수

- 소속: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 교수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객원교수
- 학력: Drew University, Ph.D.
- 수상: 2017년 경향신문 선정 올해의 저자
- 경력: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 정교수
영국 Cambridge University, 신학부 연구교수
세계신학교육기관 협의회 (WOCATI) 회장
한국일보, 시사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저서: 철학자 예수 (2024), 데리다와의 데이트 (2022),
코즈모폴리터니즘이란 무엇인가 (2022), 질문 빈곤 사회 (2021)



행사일정

시간/일정	4월 5일 (토) 공개 강연	시간/일정	4월 6일 (일) 목회자 강연
오전 10:00 - 12:00	공개 강연 1: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후 16:00 - 18:00	예수는 어떠한 리더인가? 예수 리더십의 7가지 원리와 철학
오후 12:00 - 13:00	점심식사	오후 18:00 - 19:00	저녁식사
오후 13:00 - 15:00	공개 강연 2: 21세기,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주최와 장소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후원 :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 (이석부 목사),
서부지역연회(Grant Hagiya 감독), 온타리오연합감리교회 (전재홍 목사),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월서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회장)



문의 : 이경식 부총장 (626.616.2478, slee@cst.edu)



등록 : 우측 하단 QR 참조



등록QR코드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이경식 박사(CST 부총장) “산불과 정신 건강” 워크숍



Korean Caucus of California-Pacific Annual Conference
918 N. Euclid Ave. Ontario, CA 91764
calpackoreancaucus@gmail.com | 213-700-4973

Belonging, Connecting, Developing!

산불과 정신 건강

이경식 부총장 (국제협력)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CA Licensed Psychologist

2025년 1월 13일

〈CA〉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이경식 부총장이 2025년 1월 13일 Zoom을 통해 진행된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에서 “산불과 정신 건강”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UMC코리언 코커스(회장 이석부 목사) 주최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남가주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부총장은 캘리포니아 공인 심리학자로서 산불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산불로 인해 주거지 상실, 대피의 압박, 연기로 자욱한 환경 등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우울증, 악몽,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불로 인해 여성들의 우울증 약 복용 비율이 증가한 사례도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정신적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실천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부총장은 뉴스 시청을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기부나 자원봉사를 통해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소개했다.

산불로 영향을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리적 반응과 대처 방안도 다루었다. 이 부총장은 부모가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며 정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긍정적인 대처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친구 및 동료 간의 지지를 통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장은 또한 지역 사회에 자원봉사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부총장은 산불 이후 우울증, 불안증,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증상이 몇 주간 지속될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인가정상담소 (213-389-6755 / 주소:500 Shatto Pl., Los Angeles, CA)와 한미가정상담소 (714-892-9910, 9920 / 주소:12362 Beach Blvd. Suite #1, Stanton, CA)와 같은 지역 사회 상담소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부총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사랑과 연민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일어날 용기를 주신다”는 성서적 위로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닥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며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도회는 이경식 부총장의 축도 예시로 마무리되었다. 이 부총장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들려온 작고 고요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재건의 힘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회를 마쳤다.

이번 온라인 기도회는 산불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희망을 전하며, 지역 사회와 참여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산불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의 정신적 회복과 재건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참석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번 기도회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희망과 재건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기회로 기억될 것이다.

이상수 목사(D.Min. '21): 나의 클레어몬트!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운 곳!



<사진: 이상수 목사 가족사진>

해외신학교에서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며 품었던 의문과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답을 나는 클레어몬트에서 공부를 하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교사의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이해하거나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 형편에서 도전을 한다는 것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마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름에 어둔 밤길을 걷는 느낌이었습니 다. 하지만 한 학기라도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배움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CST에서의 시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마음껏 공부하고 질문하며 나의 사고와 인식의 틀을 넘어 확장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좋은 선생님과 교우들, 훌륭한 프로그램과 시설, 하물며 동네 아이스크림 집까지 모두 최고의 기억이자 추억이 되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본질을 물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갈등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또 치유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신 김혜란 박사님, 김남중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메타선교회와 대표 신영각 목사님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경험과 배움으로 코로나19와 분란으로 인해 무너진 해외 한인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만난 갈등의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질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질적연구의 방법론으로 현상을 대하여 보기도 하고 또 코딩을 통해 핵심 가치들을 구분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치유되어야 할 영역을 확인하고 또 다시 변화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동해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 여러 반가운 일들을 만납니다. 동문 윤득형 박사님을 통해 애도상담을 깊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몬트 한국동문회 임원(서기)으로 최신성(회장), 박동식(총무) 전성국(회계) 임원 목사님들을 도우며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기쁨입니다. 또한 선교사의 경험을 살려 교단과 교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도 하나씩 만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걸어온 길에서 많은 선물과 같은 순간을 만났습니 다. 그리고 클레어몬트에서 배움을 통해 다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용기를 내어 꾸준히 이 길을 가야겠지요. 그렇게 걷다가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동해교회 전경>

박희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Ph.D. '14) Movement of the Heart 책 소개



<사진: 박희규 교수>

성서는 개신교인의 삶의 중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기에 성서를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동을 좌지우지하는 뜨거운 감자로 여겨왔다. 성서의 여러 해석과 가르침 속에서 상처를 받은 이들을 목격해 왔던 목회 상담학적 입장에서 성서는 복잡한 대상이다. 역사비평이 성서를 문서로 객체화하면서 상실한 scripture principle은 성서를 말씀으로 보는 개신교인들의 경험 속에서 성서의 주관성을 볼 수 있게 한다. 성서의 주관성을 상정하면 성서와 성서를 읽는 이 사이의 관계가 관찰된다. 관계에 대한 분석은 명백히 목회 상담학의 영역이다.

이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의 몇몇 한인 장로교회의 여러 나이대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 평신도들을 찾아내어 “성경 말씀을 통한 변화”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묻고 그 변화의 역동을 탈식민주의적 현상학으로 풀어냈다.

한국전쟁 때 고등학생으로 북한에서 남하하여 수많은 경험 끝에 일 년에 한 권씩 성경을 필사하시는 연로하신 장로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키우며 갖은 고초를 겪지만, 늘 소그룹 성경 공부 리더로 활동하시는 여집사님, 어린 시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살다가 말씀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등 여러 모습의 평신도들 삶 속에서 들려오는 고백을 깊이 있게 듣게 된다. 그들이 고백하는 변화의 여정은 이들이 묘사하는 “감동”이라는 영성의 모습으로 집약되고 놀랍게도 이 감동의 역동은 자기 심리학과 관계 문화 이론으로 설명되는 두 종류의 심리적 역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심리적 역동의 심리학적 영성학적, 문화적 차원에서 학제적으로 풀어 나간다.

한인 영구 장학금(Korean Endowment Fund)을 소개합니다.

이번 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에서는 정태기 박사와 박성자 여사의 삶과 헌신을 소개합니다. 정태기 박사님은 한국 치유상담대학원의 초대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예총장과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목회 상담과 치유 상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의 아내 박성자 여사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 여교역자협의회 회장을 지내며, 기독교 치유 사역에 헌신해왔습니다. 두 분은 함께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을 설립하여 수많은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치유와 영성을 기반으로 한 상담 사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목회 및 치유 상담 교육에 앞장서는

정태기 박사와 박성자 여사

정태기 박사는 목회 상담과 치유 상담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이다. 정태기 박사는 한국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2대 총장을 거쳐 현재 명예총장과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아내 박성자 여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 여교역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7년 남편과 함께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을 설립하여 기독교 치유 사역에 크게 기여하였다. 박성자 여사는 이 연구원의 상임이사로서 활동했다. 정태기 박사는 산과 바다와 하늘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다. 이 섬은 이후 “컴 어워즈”에서 전 세계 230개 살기 좋은 곳 중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1973년, 정태기 박사는 미국에서 학업을 시작할 때에 가족 비자 문제로 아내와 두 어린 딸을 한국에 두고 떠나야 했다. 그는 1978년에 시카고에 있는 Northern Baptist Seminary에서 신학 석사(M.Div.) 과정을 마쳤으며, 이후 Claremont School of Theology(CST) 목회학 박사(D.Min.) 과정으로 입학했다. CST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시카고 대학교와 함께 미국의 명문 신학교로 평가받았으며,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었다. 1980년에는 7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클레어몬트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의 두 딸은 클레어몬트 시 Sycamore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클레어몬트와의 인연을 더욱 깊어졌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정태기 박사는 켄터키 주립 정신병원에서 2년간 임상 인턴십을 진행했다. 1983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목회 상담학 교수로 임용되어 2004년에 은퇴했다. 정태기 박사와 박성자 여사는 한국에서 치유와 목회 상담 운동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1984년부터 라디오와 TV 방송을 통해 치유 목회 상담을 소개하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이 운동은 한국 전역에서 목회 상담과 치유 사역의 변혁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1997년에 두 사람은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을 설립했다. 지난 28년 동안 이 연구원은 5,4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박 3일 동안의 영성 치유 프로그램과 부부성장 프로그램에는 2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노력은 2014년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현재, 이 대학에는 14명의 전임 교수가 지도하고 있으며, 석사 과정 재학생 150명과 박사 과정 재학생 20명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정태기 박사는 한국 목회 상담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인정받아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는 2012년 5월 정태기 박사에게 명예 신학 박사(D.D.) 학위를 수여했다. 이는 CST 1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태기 박사와 박성자 여사의 헌신적인 치유 사역, 교육,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은 신학과 상담 분야에서 미래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5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5일 기준 -

이병준 장로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이혜자 권사
박성숙 사모
황인조 장로
이진우 회장
서혜주 권사

강신욱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이종오 박사
월서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그랜트 하기가 감독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5일 기준): **\$296,045**

- KEF 잔액(1990.03. - 2025.2.):	\$2,391,654
- KLS 잔액(2018.10. - 2025.2.):	\$698,815
- General Fund 합계(2024.03. - 2025.2.):	\$11,000
- CKM 합계(2025.1. - 2025.2.):	\$5,0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